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병원 앞에서 유권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를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고 있다. /연남뉴스

수도권 지지율 상승 민주당 과반 기대감

광주일보와 부산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강원일보, 경인일보, 경남신문, 전북일보, 제주신문 등 전국의 9개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5총선을 6일 앞둔 10일 전국 지역별 판세를 긴급 점검했다. 전국의 지역별 판세를 요약한다.



지난 8일 오전 한 정당의 유세가 열린 경기도 시흥시 삼미시장 입구에서 유권자들이 후보 지지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연남뉴스

여대야소... 민주, 59곳 중 44곳 우세

경기·인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내 70% 이상의 선거구에서 선전을 예고했고, 미래통합당은 "막판 대반전이 이제 시작됐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도내 59개 선거구 중 44곳에서 지당 후보가 상대 후보에 비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대 총선(60개 선거구) 당시 38석을 확보하며 승리를 거머쥐었던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합지역으로는 15개 선거구를 꼽았다. 지난해 다소 열세로 본 고양갑, 이천, 안성, 여주·양평 등에서도 후보 지지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박빙 구도로 좁혀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좁은 열세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분석했지만,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민심이 통합당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분당을 김민수 후보와 고양을 함경우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만안 이필운 전 안양시장, 광주갑 조억동 전 광주시장, 의왕·과천 신계용 전 과천시장 등도 높은 인지도를 무기로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 안양만안 이필운은 이번 총선에서 4선을 지낸 주호영 후보를 전격 차출해 김부겸 후보를 꺾겠다는 전략이다.

/경인일보=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특정당 쏠림 없어 뚜껑 열어봐야

대전·충청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없이 여야 균형을 맞춘 만큼 전석 석권 등 일방적인 결과는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대전에서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4명이 출마한 서구갑(박병석), 서구 을(박범계),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 을(이상민) 지역을 우세 지역으로 점치고 있다. 여기에 원외 지역인 동구(장철민), 중구(황윤하), 대덕구(박영순)는 경합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적인 의석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미래통합당은 원내 지역인 동구(이장우), 중구(이은권), 대덕구(정용기)는 수성을 장담한 정도로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원내 지역인 서구갑(이영규), 서구 을(양홍규), 유성구갑(장동혁), 유성구 을(김소연)에서도 추가적으로 2석 정도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충남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7석 이상 확보를 자신하고 있다. 현재 충남의 11개 의석 중 민주당은 6석, 통합당은 5석을 확보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충북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당 도당이 전체 8석씩을 장담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는 민주당이 4석씩 양분하고 있는 구도다.

/대전일보=장승식·김진로·박영문 기자

민주 8곳 우세...무소속 2곳 맹추격

전북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당 독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어 1-2석은 아찔이 차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8일 현재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갑, 전주를, 전주병, 익산갑, 익산을, 정읍고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8곳을 우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군산과 남원·임실·순창 등 2곳은 초접전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 흐름상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북 10석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전주병 선거구의 정동영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병은 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 후보가 1:1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다.

무소속 군산의 김관영 후보 캠프는 3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군산이 예로부터 보수 성향이 강한데다 현재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진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후보 역시 군산과 상황이 비슷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이용호 후보는 현재 드러나지 않은 밑바닥 민심이 본인에게 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북일보=이강모 기자

18곳 중 12곳 팽팽 '시계 제로'

부산 부산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다. 총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어느 정당도 압승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판세 분석에 뛰어난 전문가들조차 "나도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부산의 '제 1당'인 미래통합당은 전체 18개 선거구 중 14곳의 우세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7곳을 우세지역으로 꼽는다. 하지만 18개 선거구에 대한 정밀 판세 분석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보수 성향이 강한 2곳과 진보 지지층이 두터운 1곳 등 3-4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안갯속'이다.

거의 모든 지역이 조사 기관과 시점, 유·무선 전화 비율 등에 따라 우열이 뒤바뀐다. 단적인 예로 김영춘(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부산시장 출신인 서병수(미래통합당) 후보가 맞붙어 있는 부산 부산진갑의 경우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선 서병수(44.2%) 후보가 김영춘(39.2%) 후보를 앞섰지만,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실시한 조사에선 김영춘(38.9%) 후보가 서병수(35.9%) 후보 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부산에서 6-7석, 통합당은 10-11석 정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권기택 기자 ktk@busan.com

보수 우세 속 '코로나 표심' 주목

대구·경북 대구경북(TK)은 미래통합당의 오랜 텃밭이다. 통합당은 대구경북 25석 전승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주호영 통합당 후보가 맞붙는 수성갑이 관심 지역이다. 수성갑은 대구의 정치 1번지로 상징성이 있는 선거구다. 김부겸 후보는 당선되면 민주당 내 대선주자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후보는 통합당이 김부겸 후보에 맞서 꺼낸 희석의 카드다. 옆 동네인 수성을 선거구에서 4선을 지낸 주호영 후보를 전격 차출해 김부겸 후보를 꺾겠다는 전략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흥의락 민주당 후보가 버티고 있는 북을 지역도 관심이다. 흥의락 후보는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 행거기에 큰 역할을 한 덕분에 공무원들도 호감을 갖고 있다. 통합당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김승수 후보를 내세웠다.

경북은 구미읍, 안동예천 등지가 접전 선거구다. 구미읍은 현역 비례대표인 김현권 민주당 후보가 일찌감치 표발을 감았고, 통합당은 구미공대 총장을 지낸 김영식 후보를 내세웠다. 특히 구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장세용 시장이 당선될만큼 민주당 세력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접전 지역은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율이 높으면 통합당, 반대면 민주당이 이익을 볼 것이다. /매일신문=이창환 기자 lc156@imaeil.com

통합당 "14곳 석권" 여유만만

경남 16개 의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6석, 14석을 우세·경합우세지역으로 자체분석해 분류했다. 각 당이 목표의석 수를 민주당 '6·7석+a', 통합당 '16석 석권'으로 잡았던 것과 비슷하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이 있고 잇따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한 김해갑, 김해읍과 분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는 김두관 후보가 전략공천된 양산읍을 우세지역으로 분류했다.

통합당은 창원의창,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주갑, 진주를, 통영·고성, 사천·남해·하동,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합천 등 9곳을 우세지역으로 봤고,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변수가 없다면 창원성산과 거제 역시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경합우세지역으로는 민주당이 창원진해와 양산갑, 거제를 꼽은 반면 통합당은 창원진해와 양산갑, 양산읍을 꼽았다.

백중·백중열세지역으로 민주당은 경남 내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창원 마산합포, 밀양·의령·함안·창녕, 산청·함양·거창·합천을, 통합당은 김해갑, 김해읍을 분류했다. 특히 통합당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출마하는 산·합·거·합 지역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강석진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김태호 후보에 앞서 있다는 점을 들어 우세할 거라는 예측을 내놨다.

/경남신문=김희진 기자 likesky7

이광재發 민주 돌풍에 전체 8곳 경합

강원 여야 및 무소속 후보들의 선거 중반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선거대책위원회는 원주갑·을 2개 선거구를 우세지역으로 판단했다. 9년 만에 정계에 복귀한 원주갑 이광재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원주를 송기현 후보가 비교적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6개 선거구는 모두 경합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중 춘천갑과 춘천·철원·화천·양구 선거구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론 흐름상 최종 승리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 '힘'으로 불리던 강릉과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등에서도 통합당 후보와 대등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릉은 보수진영의 분열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고 봤다.

미래통합당은 동해·태백·삼척·정선과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3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석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철규·이양수 후보의 경쟁력이 민주당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5개 선거구는 경합이다. 춘천과 최대 인구도시인 원주는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통합당 텃밭으로 불렸던 강릉도 공천 후유증 여파로 우세가 아닌 경합 지역으로 떠올랐다.

/강원일보=원성영·이하늘기자

민주 3곳 모두 압도적 우위

제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우세 속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신문과 제주MBC, 제주CBS, 제주소리 등 제주지역 언론 4사가 <제주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실시한 4차 공동 여론조사(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도내 지역구 3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제주시갑의 경우 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43.9%로 통합당 장성철 후보(29.1%)보다 14.8%p 앞섰다. 그 뒤로 무소속 박희수 후보가 7.3%, 정의당 고병수 후보가 7.1%로 뒤쫓고 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름·무응답 등 태도 유보층은 11.2%이다.

제주시을에서는 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4.1%로 통합당 부상일 후보(33.4%)보다 20.7%p 높게 나타났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태도 유보층은 7.8%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민주당 위성근 후보가 54.8%로 통합당 강경필 후보(34.2%)보다 20.6%p 높았다. 태도 유보층은 10.5%이다.

하지만 부동층과 지지 후보 변경 가능 응답자도 적지 않아 남은 선거기간 후보별 득표 전략, 지지층의 결집과 투표 참여 정도 등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문=김재범 기자 kimjb@jejuenews.com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